

# 상의 앞면에 '전주, 아시아 문화심장터'

전주시민축구단, 새 유니폼 공개  
상의 뒤편 상단에 '고은미래' 새겨  
K3리그는 오는 16일 개막

전주시민축구단이 6일 새 유니폼을 공개했다.

이날 전주시민축구단에 따르면 올 시즌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입을 유니폼(홈·원정·셔츠)을 선보였다.

홈 경기 유니폼의 경우 구단 창단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상의와 하의 모두 노랑으로 구성됐으며, 상의 옷깃과 소매 등에는 검정색이 들어갔다.

원정 경기 유니폼은 상의의 모두 하얀색을 사용하기로 했으며, 셔츠 유니폼은 상의의 모두 흰색이다.

특히 올해는 유니폼 앞면에 '전주는 아시아 문화심장터입니다'라는 문구를 크게 새겨 전주시 홍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전북도와 전주시의 엠블럼은 각각 상의 오른쪽 소매와 하의 오른쪽에 세우고 경기에 나선다.

4년간 후원하고 있는 고은미래(진료과목 피부과)는 상의 뒤편 상단에 로고와 상호를 새겼다.

이와 함께 2022년에 전북에서 열리는 '전북 아태마스터대회' 홍보를 위해 상의 뒤편 하단에 세우고 경기를 치른다.



전주시민축구단의 새 유니폼들.

전주시민축구단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시즌 유니폼 제작을 시작했다"며 "구단은 전주시와 전북도 홍보를 위해 시안과 디자인 등 모든 과정을 꼼꼼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각 지자체에서 홍보나 행사에 대한 광고 문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K3리그가 오는 16일 개막한다. 전주

시민축구단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홈경기가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만큼 페이스북(facebook.com/jjctizen)과 인스타그램(@jeonjctizen)을 통해 경기 상황을 보여줄 계획이다.

특히 올 시즌 전주시민축구단의 모든 경기는 인터넷(naver.com)을 통해 중계 될 예정이다.

/장은성기자

# 전북현대, K리그1 최초 4연패 도전

대항마는 울산... 8일 오후 7시 전주수 수원삼성과 개막경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미뤄졌던 하나원큐 K리그1 2020이 마침내 맞을 올린다.

올 시즌 K리그1은 8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의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7개월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K리그1은 기존 38라운드가 아닌 27라운드 체제로 축소 운영된다. 팀당 두 번씩 붙은 뒤 스플릿라운드를 한 차례(5경기)씩 소화해 최종 순위를 가리는 방식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역시 전북의 타이틀 사수 여부다. 전북은 최강희 전 감독 체제에서 2017시즌과 2018시즌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지난 시즌에는 막판까지 울산에 끌려갔지만 최종전에서 극적인 역전 우승으로 3연패에 성공했다.

1983년 K리그 출범 후 세 시즌 연속 정상에 차지한 팀은 일화 천마(1983~1985년), 성남 일화(2001~2003년)와 전북 뿐이다. 전북이 올 시즌에도 마지막까지 1위를 지킨다면 역사상 최초의 4연패 타이틀이 된다.

문선민과 권경원(이상 상주 상무)이 빠져지만 올해도 전북의 스쿼드는 화려하다. 이동국이 버티고 있는 최전방에는 벨트비크와 조규성을 영입해 무게를 더했다.

지난 시즌 울산에서 MVP를 차지한 김보경의 영입으로 중원을 강화했고, 포항 스틸러스의 '젊은 피' 이수빈을 임대로 데려와 22세 이하 의무 출전 규정 고민을 덜었다.

홍정호의 완전 이적과 2018 러시아월드컵 멤버 오만석, 수원 출신 구자룡의 가세로 뒷문도 확실히 단속했다.

지난 시즌 우승컵을 눈앞에서 놓친 울산은 전북의 대항마로서 부족함 없는 폭풍 영입을 선보였다. 11년 만에 K리그로 돌아온 이경용을 품은 데 이어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 미드필더 윤빛가람, 수비수 김기희, 정승현 등 핵심 포지션의 즉시 전력감을 끌어모았다.

예상을 깨고 3위리는 준수한 성적으로 2019

시즌을 마친 FC서울과 스틸야드 30주년을 맞이한 포항 스틸러스도 호시탐탐 대권을 엿보고 있다.

지난해 흥행과 성적이라는 대구FC는 2년 연속 상위 스플릿 진출을 넘어 아시아축구연맹(AFC) 진출권 도약을 노린다. '병수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김병수 감독의 강원FC는 다크호스로 분류된다.

하위 스플릿으로 시즌을 마쳤던 이들에게 2020시즌은 명예회복의 무대다.

강호의 이미지가 완전히 실종된 수원 삼성의 현실적 목표는 6위내 입성이다. 성남FC와 인천 유나이티드는 각각 김남일 감독과 임완섭 감독 지도 아래 첫 시즌을 맞이한다. K리그2에서 승격한 광주FC와 부산 아이파크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줄 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상주 상무는 성적에 관계없이 올 시즌 끝으로 강등이 확정됐다. 상주는 시민구단 창단을, 상무는 새 연고지를 찾는 중이다. 상주와 상무 모두 규정에 따라 K리그2에서 2021시즌을 맞이한다.

상주 변수에 따라 강등팀의 운명이 갈린다. 상주가 최하위가 되면 상주는 자동 강등되고 K리그1 11위팀이 K리그2 플레이오프 승리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상주가 최하위가 아닐 경우 K리그1 최하위팀이 상주와 함께 자동 강등되고, K리그2 우승팀과 플레이오프 승리팀이 승격한다. 이 경우 승강 플레이오프는 열리지 않는다. 상주의 전력상이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한편 올해부터는 동남아시아(ASEAN) 쿼터의 신설로 구단별 최대 5명의 외국인 선수(국적 불문 3명+AFC 가맹국 1명+ASEAN 가맹국 1명)를 보유할 수 있다.

3회 경고누적마다 1경기 출장정지가 부과됐던 과거와 달리 최초 5회 경고누적 시 1경기 출장정지, 그 다음 3회 경고누적시 1경기 출장정지, 그 다음부터는 2회 경고누적마다 1경기 출장정지가 부과되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뉴시스



전북현대팀이 올해 K리그1에서 4연패에 도전한다. 사진은 하나원큐 K리그1 2019 마지막 경기가 열린 지난해 12월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우승팀 전북현대 선수들이 팬들에게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 '코리안 특급' 박찬호 "KBO리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길"

'코리안 특급' 박찬호(47)가 KBO리그 개막을 반기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길 바랐다.

박찬호는 지난 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개막한 한국 프로야구에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시작하는 KBO리그가 이번 기회를 통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한국야구의 위상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국민들에게 희망의 에너지를 주는 뜻깊은 시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1994년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박찬호는 한국이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1990년대 말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쳐 국민들에 위안과 희망을 안겼다.

박찬호는 2012년 고향팀인 한화 이글스에서 뛰던 현역에서 은퇴했다. /뉴시스

# K리그1 개막전, 유튜브·트위터 통해 전세계 생중계

전북현대-수원삼성 공식 개막전에 영어 해설·자막 입혀

하나원큐 K리그1 2020의 개막전이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8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의 공식 개막전을 K리그 공식 유튜브 계정(youtube.com/withkleague)과 공식 트위터 계정(twitter.com/kleague)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2020시즌 K리그 타이틀스폰서인 하나은행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스트리밍 서비스 덕분에 국가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중계방송을 접할 수 있다. 해외 홍보는 연맹의 해외중계권사인 스포츠레이다가 맡는다.

연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개막하는 세계 최초의 리그라는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 무료 생중계 서비스는 개막전만 시행한다.

연맹은 국내 TV채널 및 포털사이트 중계화면

과 별도로 영어 자막과 해설을 입힌 화면을 유튜브와 트위터에 송출할 예정이다.

영어 자막과 작업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K리그 미디어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영어 해설은 월드컵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호주 A리그 중계경험을 갖고 있는 영국인 해설자 사이먼힐이 호주 현지에서 원격으로 진행한다.

K리그는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안전한 리그 운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개막 연기와 일정 축소 등 신중한 대응을 해왔다.

선수단 및 관계자 전원이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고, 구단 간 연습경기 자제와 외부 접촉 최소화, 연맹이 마련한 매뉴얼 준수 등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했다.

최근 K리그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검사대상자 전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안전한 개막을 맞이하게 됐다. /뉴시스

여름, 어디로 갈까?  
사시사철 아름다운  
순창 강천산으로  
오세요!

순창이 참 좋다.oo  
Season Your Life with Sunchang